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무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쾨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신명 26,4-10

제2독서: 로마 10,8-13

복음: 루카 4,1-13

가톨릭 성가 입당: 124

봉헌: 223

성체: 177

파견: 490

◆ 화답송



(후렴) 주 님, 환 난 가 운 데 저 와 함 께 계 시 읊 소 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기를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유혹, 갈 곳이 있는 사람의 것"

봉성체를 하는 중에 점심때가 되어가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기도 소리보다 더 커지기 시작한다. 커져가는 소리만큼 기도문 속도도 빨라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봉사자의 운전도 다급해져 가끔은 불법유턴을 한다. 이를 어쩌나 다음 집은 음식냄새 풀풀 나는 시장 통에 있는데..... 거룩한 성사를 집전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이리도 약해지다니.

우리의 삶은 유혹의 연속이다. 다이어트 하는 이가 만나는 먹거리의 유혹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이나 사기, 도둑질의 유혹도 느낀다. 그밖에 삶의 즐거움을 찾는 가운데 성적쾌락이나 음주, 도박과 같은 유혹들도 만난다.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던가! 나란 사람은 애초부터 다이어트라든가 착하게 살기, 신자나 사제로 살아가기에도 부적합 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유혹은 가야할 길이 있고 해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다이어트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은 결코 유혹이 아니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이에게 사소한 법의 위반과 편법은 유혹이 아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빵과 세상의 권세, 하느님 능력의 과시등과 같은 유혹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목표 때문에 만난 것이지 그것들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쓰러지듯, 우리가 만나는 유혹은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만난다. 이번 한 주도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마다 각자 어떤 꿈 때문에 만나게 된 유혹인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

(성경맛들이기 계속)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5,1-6,20)

신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친상간의 음행과 교만에 대해 꾸짖고 있다. 음행을 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을 하는 자 등은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비행과 악습이라는 묵은 누룩에서 벗어나 누룩 없는 빵, 즉 순결과 진실을 지키라고 권고한다.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일깨우면서 음행을 피하고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한다. 또한 송사가 있을 때 이교도들에게 가서 재판관을 받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형제 사이의 시비를 이교 법정에서 해결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며, 더욱이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것은 큰 잘못임을 역설하고 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7,1-11,1)

결혼은 죄가 아니니 서로 자유롭게 결혼을 택할 수 있지만 결혼을 했건 독신이건 현재 상태에 충실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 남편에게 제 의무를 다 하라고 한다. 또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느님만 계시기에 우상은 없다고 판단하여 먹을 수 있지만,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 형제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한 몸이 되어 모든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11,2-14,40)

만찬 시에 드러나는 분열과 욕심을 지적하면서 성찬례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다. 최후의 만찬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인 만큼 먼저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참여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빵을 먹거나 잔을 마시면 주님의 몸과 피의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준 고유한 은사는 모두 공익과 교회를 키우는 데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예언이나 이상한 언어를 할 때에는 예의와 질서를 지키라고 당부한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은 바로 사랑의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간지에~)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승민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KO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광고주를 찾습니다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3월 10일	채봉석 그레고리	이한상 미카엘	김보현 엘리사벳	오윤서 글라라	정희연 첼리나	유기호 김창훈	홍찬 김하나	민완준 민덕미 김은희 백승훈 김영숙 이지훈 홍민철 조리디아
3월 17일	주세정 레이첼	정동주 유스토	최병은 루치아	한채희 로사	최진영 수산나	민완준 김성중	홍원표 장동엽	양미숙 김승애 이지연 박신희 유정옥 유기호 장혜윤 김영희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공 지 사 항

➤ 3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20,27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17일 제외)	오후 1시30분~2시50분	

➤ 사순절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이 기도는 초대 교회 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 산까지 직접 걸어가며 기도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시작 및 주관단체 : 오전 9시, 윗 성당

오늘	요셉회/성모회
3/17	꾸리아
3/24	청년회
3/31	학부모회/예수성가정회
4/7	울뜨레아
4/14	성령기도회/양업회

➤ 사순특강 및 판공성사

주제 : "그리스도의 몸"

강사: 박성호 다미아노 신부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일시: 오늘 10:30-16:00

강의 10:30-12:30(다미아노 홀)

점심 12:30-13:00(김밥, 다미아노 홀)

판공 13:30-16:00(아래성당 고해소)

고해사제: Fr. 김성인 미카엘, 박성호 다미아노, 박현웅 미카엘

☉고백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짧게 하시고, 상담이나 긴 고백이 필요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부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뉘우침'

현수 97

➤ 2019년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일시 및 장소 : 4월 6일(토) 오전 11시, 아래성당

☆4월 꾸리아 정기 모임도 함께 합니다.

➤ 2019년 청년 피정

주제: 청년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조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까?" (루카 3,10)

일시 : 3월 16일(토)-17일(일)

장소 : 뉴튼 수도원

참가비 : \$135, Venmo @MJKook

신청서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nxa1WVrEdHMxXc5dPDA6SkR-Sw0KXeSNXPljedbUNGqQxQ/viewform>

➤ 청년 성서모임 봄학기 그룹원 모집

청년 성서모임에서 새로운 학기에 성서모임을 함께할 그룹원을 모집 중입니다.

성서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나눔을 하는 신앙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반을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 <https://goo.gl/forms/aZBlrwegE7iiYOEL2>

첫 모임 : 3월 31일 오후 1시

대표 : 양소영 엘리사벳(617.455.2245)

부대표 : 김형미 소화 데레사(929.361.0502)

➤ 참 부모가 되는 길

부모 자신은 물론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일시 : 3월 24일(주일) 오후 1시30분 접수시작

시간 및 장소 오후 2시~8시, 가톨릭회관

대상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참가비 : 1인 \$20 / 신청마감 : 오늘

신청 : 박기목 알버트 부부(646.808.7322)

➤ 2019년 찬양 · 치유 기도회

일시 : 3월24일 주일(미사 있음) 2PM-6PM

장소 : 뉴욕 예수 성심 성당

(10 Lawton Ave, Hartsdale, NY 10530)

준비물 : 없음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 미동북부 여성 제37차 꾸르실료 교육피정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일 시 : 4/25 ~ 28일(3박 4일)

장 소 : 뉴저지 뉴튼 수도원

주 관 : 동북부 울뜨레아 사무국(지도: 박흥식 신부)

문 의 : 신부님, 김승애 클라라(봉사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 순종, 사랑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 분과의 귀한 만남으로 가톨릭 신자로서 단 한번 만 주어지는 교육피정입니다.

여성꾸르실료는 매년 4월, 남성은 10월에 각각 있습니다.

“성경 맞들이기” - 코린토 서간

코린토 전서는...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서간성경.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다. 코린토 교우들이 처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어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아는 데에 중요한 성경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송가’가 실려 있다.

저자 : 사도 바오로

저술 연대

사도 바오로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 에페소에서 머무를 때(54년-57년쯤) 쓰였다. 바오로가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사도 18,11)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코린토 교회가 성(性)도덕의 문란과 분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전해 듣고 에페소에서 편지를 썼다.

저술이유

코린토 교인들이 적어 보낸 문제들(1코린 7,1)에 대해 답하고 코린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고자 쓰였다. 코린토 교인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분열과 음행은 결코 바오로가 전한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한 분 하느님 안에서 서로 일치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일깨우고 있다. 자유, 결혼, 우상 숭배 등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도 함께 일러줌으로써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애쓸 것을 사랑 안에서 호소하고 있다.

주된 내용

코린토 전서는 모두 16장이다. 분쟁과 윤리적인 폐단, 결혼, 공동체 예배시 지켜야 할 자세, 부활 신앙 등 코린토 교인들이 부딪친 문제들에 대한 대답들이 바오로의 사상, 열정적인 신앙과 어우러져 담겨 있다. 코린토 전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1,1-4,21)

코린토 교회가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갈라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같은 정신과 같은 사상으로 일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느님의 능력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오로 자신이 말하는 내용 역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배웠으며 오직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 목마르고 헐벗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견디어내는(4,11-13) 선교사의 참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어집니다)

◆ 미 사 봉 헌

● 연미사	봉헌
이영우, 이태모	이상홍 스테파노
김예모 아가다	익명
● 생미사	벨라
김순한 루시아	박종옥 마리아
이희순 글라라	황인자 헬레나, 익명
표해심 카타리나	김현정 글라라
이경동 탈렐레오	성령기도회
64차 성령세미나	강건대 마리아
황인자 헬레나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김용기 요셉, 김옥지 아가다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이재호 클레멘트, 강세랑 엘리사벳	성령기도회
성령기도회 회원과 가정	양미숙 마리아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성모회
경재순 가밀라	김종훈 미카엘
김신욱 토마스 가족	백승훈 야고보
임수영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3,080
감사헌금	\$ 200
도서부	\$ 1,000
합 계	\$ 4,280

교무금 :

홍봉운 윤항구 이경자(울) 김성모 허철범
 셀리나해지스 송명자 김택영 진홍섭 성숙영
 김행자 김차순 마봉한 양미숙 박종옥 김보현
 백승훈 김계현 윤동진 박기목 노혜영 김애희
 김창훈 강건대 민재인 김영빈 이희철 양복연
 배인순 린다김 서지석

감사헌금 :

진홍섭 백승훈